“ 피곤하다. “

요즘 내내 그런 생각만 한 것 같다. 시간은 더디게 가고, 지방이라 그런지 할 일은 너무 없고.

얼마 전에 드디어 MAM 사용 자격증을 따고 지방 병원에 일자리를 얻었다.

참, 처음에 MAM이 공개되었을 때가 떠오른다.

‘ 게임에라도 쓰이게 될까.. ’

생각하면서 흥미 있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던

나는 의료 기계라는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의사의 꿈을 떠올렸다.

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환자의 기억을… ’

이라는 구문을 보곤 결국 프로그래머가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

그날로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,

의료 자격증이지만 허들이 낮다고 평가받던 MAM 자격증을 따기로 했었다.

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MAM의 모니터만 바라보던 나에게, 이메일이 도착했다.

“ 스캔부서 복 팀장..? ”

부서와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.

‘ 마침 심심하던 차인데 잘됐다. ’

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메일을 다 읽었다.

별 내용은 없었지만 정리하자면 새로운 환자가 왔고, 이미 스캔과 상담이 끝났단다.

여기 사람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됐었지. 참 맥 없는 UI의 OS다. 누가 만들었는지 참.

“ 화가인데 흰색에 거부감을 느낀다고? ”

‘ 참 기묘한 증상이네 ’

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VR을 쓰고, 기억에 접속할 준비를 했다.

다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간다는 느낌, 참 묘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접속에 성공했다.

접속에 성공하자마자 보이는 건 가정집인 것 같았다.

“ 투룸에 침대도 킹사이즈고.. 꽤 돈이 많은 사람인가?

요즘 집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건 힘들 텐데? ”

현실에 대해 불평하다가,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가자 세 개의 캔버스가 놓여져 있었다.

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, 다가가서 상호작용해보니 역시나 다른 기억으로 이어져있었다.

잠깐의 로딩 후, 나는 주변을 살펴보다가, 환자의 기억 복제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.

“ 아마 이 때 생애 처음으로 나룻터에 와봤던 것 같아. 평소엔 오지 않으니까. ”

아마 그림 속으로 들어와진 것 같은데,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펴보았다.

주변에 흰색 물감 튜브가 놓여져 있었다.

아마 이걸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,

어떤 물체는 기억 속의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여, 환자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정보가 떠올랐다.

한참을 헤맨 후에, 나는 이 물감 튜브가 물체의 색깔을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.

텐트 앞의 놓여져 있는 캔버스의 스케치에 가까이 가자,

색깔을 흡수한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 그림으로 들어갔다.

“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을 모으면 되는건가 ? ”

어떻게든 텐트와 의자의 색깔을 빼낸 나는 한가지,

해가 떠오르는 호수의 그림이 색깔이 차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

‘ 무슨 호수 색깔이라도 빠지나? . ’

색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는, 부둣가에 멈춰있는 나룻배를 보았다.